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손질'

광주시는 6월 "12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전국 최초로 합치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년 간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운영한 결과 민원성 사업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업, 시 사업과 중복되는 등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제안사업 건수는 증가했지만 시 정책에 파급효과가 큰 제안사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신청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 전체에게 수혜가 돌아가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 방식을 올해부터 분야별 합치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 합치 도입...유사 사업 통합 등 기대 2018년 120억원 규모 사업 추진...내일 설명회

공포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시민의 좋은 의견이 보라, 확정되도록 시민참여예산위원, 관련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10~20명 내외로 구성된 '합치단'이 컨설팅을 통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고 사업방향과 사업비 등을 조정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합치 단을 선정된 사업은 8월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8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 추진된다.

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평가

하는 방안을 마련,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 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접수받는다.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체육, 복지건강, 환경생태, 도시주택, 일자리경제, 전략산업, 교통건설, 일반행정(인권, 안전, 주민복지 등) 등 시정 전반을 8개 분야로 나눠 접수한다.

단 사업 선정 시 특정 자차구 민원성사업, 특정단체사업, 도로포장, 시설 개·보수 등 SOC 사업은 공모사업 심사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예산제정정보 '시민참여예산제-시민참여예산 사업신청' 또는 시 예산정책관실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을 대표해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제1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73명을 10~31일 공개 모집한다. 위원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으로 이 기간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수렴·제출, 설명회 참여 등 예산변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한다.

시민참여예산제 설명회는 8일 오후 2시 시청 무등홀에서 열린다.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광주 제1하수처리장 '친환경 변신' 그린파크 등 운영 조성...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광주환경공단 제1하수처리장이 환경기초시설이라는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등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하루 6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제1하수처리장은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그린파크, 생태도시설 등 4개의 크고 작은 공원을 만들어 국민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생애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에너지제로 하우스 내부에 생태관 조성했다. 여기에 시설 안에는 하수 최종 처리 후 방류되는 물을 재이용해 약 160명(318㎡)의 생태연못을 꾸며 시민을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재구성하기도 했다.

공단은 매년 유류공급을 최대한 활용

해 권하도에 아름다운 꽃길 만들고 조성 시설물은 개·보수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재정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꽃아기'는 풀나물 농작물 환경교실'을, 견학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맞춤형 환경기초시설 해설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제1하수처리장을 찾는 방문객도 지난 해 4500명을 달성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불철 건강식 솜어·멍게가 최고 전남도, 3월 어식백세 선정

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불철 건강식 수산물인 솜어와 알찬 맛이 일품인 멍게를 3월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솜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감칠맛이 뛰어나다. 또한 생선기 배에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조혈 작용이 우수해 빈혈 환자에게 계 계절뿐만 아니라 위와 미장을 비롯한 각종 장기를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고 몸에 살이 붙는다고 해 불철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우렁강이리고도 불리는 멍게는 '바다의 파인애플'로 불린다. 맛과 향이 뛰어나 생후 3~4년 가장 자란 것을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상쾌하고 달콤한 맛맛이 나고, 지질이 거의 없어 해삼 및 해파리와 함께 3대 저칼로리 수산물로 꼽힌다.

백정환 기자 hobu@



전남도는 6월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이기근 고용노동부 장관 등 100여 명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전국 '최우수'

고용노동부 평가...통합지원센터·신보상품 운영 등 호평

전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기관표창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 노력과 사업 성과와 분석해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것이다. 평가 분야는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 사회적기업 발굴, 사회적기업 육성 등이다.

전남도는 기업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분산 운영해온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

한 것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기업 전환 비율이 70% 이상으로 타 시도보다 높았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금을 주는 영세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가 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 '사회적기업 전용 신용보증상품' 운영이 높은 우수사례로 추가 가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뉴세·세' 운영, 로컬푸드 직접 지원 등 차별화된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을 펼친 것도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사회적기업

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1802명으로 전년(1604명)보다 6.3% 늘었다.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유아 숲 체험 참여하세요" 완도수목원, 4~11월 운영

완도수목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완도수목원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완도수목원은 지난 2010년부터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오감만족 위주의 자연놀이활동 등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난타리와 수목원의 풍부한 견시자원을 활용해 다양하게 진행한다. 특히 국내 최대 난타놀이 전통 한옥인 산림박물관, 아열대온실 등 전시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숲과 교감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자연관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백정환 기자 hobu@

주민·전문가, '가고 싶은 섬' 머리 맞댄다 전남도, 오늘 여성플러지서 워크숍...우수사례 등 공유

전남도는 7일 전남여성플러지에서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10개 섬 주민 대표, 섬 전문가,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가고 싶은 섬' 가꾸어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2033억원을 들여 24개 섬을 가꾸는 사업으로 첫 해 6개 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섬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삼별 실행계획에 따라 숙박과 먹거리, 볼거리, 걷는 길 등이 갖춰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손님을 맞을 모습을 갖춘 강진 경우도, 여수 남도, 신안 반월·백제도 3개 섬이 문을 열었고, 올해는 고흥 연등도(4월), 완도 소안도(5월), 진도 관매도(6월)가 차례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여행과 맞이에 나선다.

워크숍은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여

수 손죽도와 신안 기점·소익도의 조지보고 화담 시작으로 섬 가꾸기 우수사례를 공유,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열린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도서문화연구원 박사의 '국내외 지속가능한 섬 개발사례' 특강과 영암시도 섬 가꾸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가고 싶은 섬 2년, 성과와 평가' 주제 강의가 펼쳐진다.

매년 2회씩 정기적 학습공동체로 이어지는 '가고 싶은 섬' 워크숍은 주민과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다.

완도 청산도노르섬 여행학교를 처음으로 강진 시외, 고흥 풍영 연등도, 전북 남원지리산 수재 들레길, 담양 운수대생 마을에 이어 이번이 번째다.

백정환 기자 hobu@gwangnam.co.kr

전남진흥원, 우항리 공공화석 콘텐츠 개발

해남군·죽도나리·(주)캐릭터플랜과 애니메이션 개발 협약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장원)이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진흥원과 해남군, 콘텐츠 제작기업 죽도나리, (주)캐릭터플랜은 6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군 유일의 공공화석 자원성 유적지인 우항리 특화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플랜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지역문화산업 진흥 및 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지역문화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홍보 협력, 창의적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해남 공공화석 유적지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콘텐츠와 놀이체험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략을 다할 예정이다.

백정환 기자 hobu@gwangnam.co.kr

장성, 동화면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평당60만원)

니주, 공산면 근린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참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매매 - 5000만원

상담문의 H. 010-3605-5000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 방3, 거실1, 전방침용
- 2012년 신축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급매 - 1억
- 즉시입주가
- 문의 H. 010-8902-7900

오피스텔 급매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제일 오피스텔
- 20층중 17층, 29평
- 사무실전용, 전망최고
- 내부 인테리어 시설
- 시세 - 8500만원
- 급매 - 55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월산동, 광전파크

-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
- 20평, 5층중 4층
- 방2, 거실1, 남향
- 2013년 신축
- 신우APT 105동 옆
- 시세/분양 1억3천만원
- 급매 - 9500만원
- 즉시입주가
- 주인직매
- H. 010-3605-5000